

2023 대한민국 헌혈공모전(수기)

제 목	아빠 우리 아들을 사랑해
2021년 한여름의 한복판에서 태풍도 밀어내지 못하는 더위가 찾아왔다. 전 세계를 통틀어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었다는 그 더위는 논란의 2020 도쿄 올림픽 가운데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코로나19 4차 팬데믹과 상승효과를 일으키며 사랑하는 아들의 재발한 뇌종양 치료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다. 2021년 7월 셋째 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아들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다. 종양이 항암에 반응하기를 기도하며 고용량 항암과 양성자 치료를 앞두고 준비 항암을 진행 중이었다. 41개월 된 아들은 서울삼성병원 간호사들 사이에서 「서8병동 뽀로로」라고 불렸다. 꽤 튀는 모자이지만 항암으로 빠진 머리를 감추려 아이는 뽀로로 모자를 계속 쓰고 다녔고 남들 앞에서는 모자를 절대 벗지 않았다. 2020년 작년 6월 30일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날이다. 평택에서 의정부까지 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배움중심교육』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TF팀을 만들었고 작년 교육과정 부장이었던 나는 교감 선생님의 제안으로 TF팀에 합류하였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육에 헌신하겠다는 의욕이 넘쳐흘렀다. 힘든 출장을 마치고 돌아올 무렵은 밤 9시 정도였다. 스피커폰 너머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간 아내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흑흑... 우리 아들이 널모레 뇌 수술을 해야 한대 흑흑...” 그냥 원인을 찾으려 3차 병원까지 간 것이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다. 그래도 별거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진정시켰다. 다음날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갔을 때 드라마에서나 들어보았던 【뇌종양】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당시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아주 신속하게 대처를 잘해주었다. 입원 40시간 만에 수술 일정을 빠르게 잡아주었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9월 2일까지 30회의 방사선 치료를 무사히 마무리했다. 그리고 다 끝난 것이라 생각했고 이런 영화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3개월 후 12월 2일 정기 MRI 검사에서 깨끗했다. 아이의 상태도 좋았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했다. 마침내 6개월 후 정기 MRI 검사 2021년 6월 2일 날이 왔다. 평소와 같은 날이었다. 당일 아들은 무척 건강했다. 씹씹하고 심지어 날아다녔다. 아들의 MRI를 찍은 후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며 점심도 맛있게 먹었다. 외래진료 교수님 만나기 5분 전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지금까지 연이 끊어지지 않은 2011년도 쌍둥이 학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하여 통화를 했다. 미국에 초청해 주시겠다는 학부모님의 제안을 듣고 내년 육아휴직을 이용해 2022년 봄 미국에서 여행하고 있을 우리 가족의 행복 희망 회로를 머릿속으로 돌리면서 즐겁게 통화를 했다. 그렇게 통화를 한	

것이 채 5분도 되지 않았다. 모니터를 쳐다보시던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쓰읍... 이거 수술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에? 네? 네?” ‘코로나19로 인한 교수님과의 사이 칸막이 때문에 잘 못 들었나?’ 라고 처음에 생각했다. “쓰읍... 수술 한 번 더 해야 되겠다고” “수술이요? 뇌 수술이요?” 눈이 휘둥그레지며 몸과 고개가 저절로 교수님 쪽으로 더 기울어졌다.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합시다” 그렇게 6일 후 수술 날짜를 잡아주셨다.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나며 세상의 모든 빛이 차단되는 것 같았다. “혹시 MRI가 바뀐 것은 아니겠죠? 아이가 너무 멀쩡한대요 교수님” “아버님 모니터 한 번 직접 보세요. 이렇게 종양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이를 쳐다보면 너무 정상인데 아이의 머릿속에 악마 새끼가 다시 부활해서 커지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한숨도 못 자고 뜯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출근을 하고 교장 교감 선생님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평평 울었다. 연구실에서도 동학년 선생님들께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절규하며 울었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출근해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다. 교실 앞 복도에서부터 아이들 체온을 재면서 울었다. 1교시 시작 전에 교감 선생님이 조퇴를 권하셨다.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 상황을 말하면서 아이들 앞에서도 평평 울었다. 그리고 집에 왔다. 아이는 너무 말짱했다. 집안에서 소파에서 거실로 식탁 위로 날아다닌다. 이렇게 말짱한 내 아이의 머릿속에 악마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니 내가 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다. 울분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소리 내어 울 수는 없었다.

6월 8일 수술 당일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수술이 끝났다. 수술 직후 침대에 옮겨져서 이런저런 기계와 링거 줄을 주렁주렁 달고 중환자실로 올라가는 아들은 그래도 의식이 있었다. 그리고 울면서 짜증을 냈다. 반응을 보이는 아이가 너무 고마웠다. 복도와 엘리베이터로 아이 침상을 쫓아 올라가는 1분 남짓 한 시간이었지만 의식을 찾아서 울고 짜증을 내는 아이의 모습에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너무 감사했다. 작년에도 아이가 수술 직후 의식을 잃지 않고 울면서 짜증을 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내 입 밖으로 튀어나왔었는데 데자뷔도 아닌 이 상황을 두 번을 겪고 있는 내가 너무 비참했다.

아이가 뇌 수술을 한 이후로 혈소판 혈장 다중 헌혈을 2주에 한 번씩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수혈이 필요한 소아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른 채 남의 이야기로만 여기며 살아왔다. 논산 훈련소에서 첫 헌혈을 시작한 이래로 20년이 흘렀지만 아이가 아프기 전까지 헌혈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혈장 헌혈을 주로 해왔다. 우리 아이처럼 아픈 아가들에게 바로 수혈되는 생명을 살리는 혈소판 헌혈이나 전혈 헌혈을 했었어야 했는데 헌혈 횟수에만 집착했었던 과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른다. 옆 병상에서 같이 혈액 수치가 떨어져서 마음 전전궁궁 앓던 아가들의 부모는 지금 우리 부부의 모습이다.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은 자연 재해와 같을 뿐이다.

수술 후 작년엔 하지 않았던 항암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역형성 상의세포종은 항암이 잘 듣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데이터가 그렇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표준 항암을 시작했다. 암 병동으로 옮겨가서 빈크리스틴 등 이름도 어려운 항암제 몇 종류를 맞고 부작용을 억제하는 방광 보호제 등 여러 가지 약물들을 맞았다. 항암으로 인하여 아이의 혈액 수치는 곤두박질쳤다. 빨간 피라고 불리는 전혈과 노란 피라고 불리는 혈소판을 매일 수혈받았다. 이 코로나 시국에 헌혈을 해준 분들이 너무나 감사했고 나도 더 열심히 꾸준하게 건강을 관리하며 헌혈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맹세했다.

방사선과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서울삼성병원으로 양성자 치료에 대해 알아보러 갔다. 작년에 서울삼성병원에서 양성자 치료를 하기 위해 상담을 받았었는데 1년 만에 똑같은 교수님을 또다시 만났다. 교수님은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항암제를 어떻게 하든 간에 양성자 치료를 하긴 할 텐데 지금 또 다른 문제가 양성자 자리가 가능한 것이 9월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항암제가 좀 메꿔주면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원하여 본격적인 항암을 시작했다. 허리에 연수막전이가 된 것이 항암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머리에는 세 달 만에 다시 종양이 보여 9월 2일 세 번째 개두술을 하게 된다. 그 후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무균실 이식방에서 조혈모세포 이식과 고용량 항암을 두 차례나 하게 된다. 무균실에 조혈모세포 이식하러 들어가기 며칠 전 간호사 선생님께서 수혈이 필요할 거라고 알려주셨다. 수치가 7.0 이하여도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혈이 불가능한 코로나 시국이였다. 매일 마음을 졸이며 아이가 받아야 하는 혈액이 없을까 봐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헌혈을 홍보했다. 나 자신도 울면서 헌혈을 했다. 내가 20년간 해왔었던 헌혈이 사람 살리는 헌혈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아이가 수술과 항암을 하면서 받게 된 혈액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귀중한 시간과 돈과 희생이었다. 그리고 그 혈액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며 우리 가족에게 감사함 그 자체였다. 생면부지의 혈액들은 내 아이의 수술실에서 그리고 이식방에서 목숨의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생명을 연장시켜준 생명수와 같았다.

아들은 안타깝게도 2022년 말 종양이 또다시 재발하여 두 번의 종양 제거 수술을 더 받게 되고 현재까지 추적 관찰 중이다. 아직 투병 중인 아들은 혈액 수치가 떨어질 때마다 다른 사람의 혈액으로 건강을 되찾고 있다. 나는 지난 2023년 4월 7일 200회째 헌혈을 하게 된다. 아빠는 신에게 올부짚으며 맹세한 것처럼 죽을 때까지 건강관리 잘하면서 소아암 아이들을 위하여 혈소판 혈장 헌혈을 할 것이다. 아들이 예전처럼 뛰어다니고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아빤 우리 아들을 사랑해

